

[사회]

헝겂고 굶주린 아동 40만명 보듬다

회갑 맞은 어린이 재단 광주서 '후원의 밤' 행사 후원-결연 아동 300명 감사의 만남

분단과 6·25전쟁 와중에 창설돼 전쟁고아와 불우아동의 요람이 돼 온 '어린이재단'(회장 김석산)이 창립 60년을 맞이했다.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도 창립 42년을 맞았다.

재단 창립 이후 60년동안 어린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어린이는 모두 40만여명. 반세기 넘게 세월동안 소외 아동과 어린이를 보듬는 일에 전념한 재단이 회갑을 맞은 것이다.

어린이재단이 재단 창립 60주년과 광주본부 창립 42주년을 맞아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관천동에서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후원자 150여명과 결연아동 150여명이 직접 만나 후원활동에 대한 보

람과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송화태(50·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20여년 전부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원을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후원은 베풀면서 얻기도 없는 나눔 운동이라 생각한다. 이 운동이 널리 퍼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재단은 1948년 10월 미국 CCF(기독교아동복지회)의 지원을 받아 당시 굶주리고 헝겂은 어린이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하며 아동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재단의 지원을 받고 사회인으로 성장한 아동은 40여만명에 이른다.

재단은 단순 복지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위탁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종아동보호사업, 결연후원사업 등을 펼쳤다.

2001년부터는 북한 어린이 돕기 사업도 시작했다. 육아원(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평양에는 빵 공장을 세웠다.

창립된 지 42년된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도 이 지역 4천여 불우 아동들에게 후원금과 사랑을 전하며 나눔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본부는 이 지역 30곳의 양육시설, 사회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불우아

동들에게 꾸준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3천850명의 후원자가 6억6천5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2천여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유길원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지역의 경우 5만2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4천여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나 불우아동들의 자립과 재할 나그나 치료에 큰 힘이 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어린이재단 창립 60주년 및 광주지역본부 창립 42주년 행사인 '2008 후원자-결연아동 만남의 날'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관천동 경북공 워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위정기자 jw@kwangju.co.kr

경찰 '닭장차' 철망 없앤다

시민들 거부감...이달 말부터 제거

차량 창문에 철망이 달려 있어 일명 '닭장차'로 불렸던 경찰 버스에서 철망이 제거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의 경찰 버스에서 철망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버스는 전국에 1천145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버스에 부착된 철망이 제거되며, 이중 50여 대는 원래 철망 대신 강화 플라스틱이 부착된 버스로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의 철망은 1980년대 초부터 시위대가 던지는 화염병과 돌 등으로 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됐지만, 그동안 폐쇄적인 이미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도심 미관

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앞으로 평화적 준비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 지원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경찰버스 등 공동체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대규모 집회에서 준비 집회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찰버스의 철망을 제거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측

▲박화경(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한정희씨 차남 민재군 김재수·김여순씨 장녀 정은영=29일(토) 낮 12시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운 5층 그랜드볼룸홀.
▲김현웅(광주시 도시건축국장)·김명실씨 차남 재승군 김영섭·이향남씨 장녀 문이영=29일(토) 낮 1시 상무지구 에빌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주북부지사장)·정기숙씨 장녀 슬희양=29일(토) 낮 1시 전북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2층 로즈메리홀.
▲김기승·정혜숙씨 장남 남균군 한애련(화순 오성초 교사)씨 삼녀 김수정양=29일(토) 오후 2시 서울 공화웨딩문화원 2층 루비홀.

▲박준주(대한세라믹스 대표이사)·김재희씨 장남 건영(의정부지법 검사)군 김도민(법무사)·김정중씨 딸 김현양=29일(토) 낮 1시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김기승·정혜숙씨 장남 남균군 한애련(화순 오성초 교사)씨 삼녀 김수정양=29일(토) 오후 2시 서울 공화웨딩문화원 2층 루비홀.
▲박준주(대한세라믹스 대표이사)·김재희씨 장남 건영(의정부지법 검사)군 김도민(법무사)·김정중씨 딸 김현양=29일(토) 낮 1시 서울 대검찰청예식장.

부음

▲국원영씨 별세 오원기(건국대 의대 부속병원)·양기(북포대)·형기(하남 가정의원)씨 모친 신영숙·조항숙·위금선씨 시모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윤성란씨 별세 박상열·영주·영미씨 모친상 장민광·고병하씨 방모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전남 중고생 매년 1천여명 중도 탈락

70%가 학교 부적응·가사 문제 때문...고교생 10명 중 1명만 복교

전남지역에서 매년 중·고교생 1천명 이상이 '학교부적응'과 '가사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중학생 250명, 고등학교생 786명 등 1천36명이 중도탈락했다.

지난해 중도 탈락생 1천52명에 비해 숫자가 약간 줄었지만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 탈락

생 가운데 중학생은 63명이 학교로 되돌아와 4명에 1명꼴로 복교를 했으나 고등학교생은 82명만 복교, 10명 중 1명에 불과해 복교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한 고등학교생은 복교 뒤 다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18명에 달했으며 중학생도 5명이 다시 학교를 그만뒀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35.2%)이 가장 많았으며 '가사문제'

(32.6%), '질병'(5.8%), '폭행'(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목포 247명, 여수 222명, 순천 183명, 광양 93명, 나주 81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원 수련이나 결연교사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중도 탈락을 막고자 애쓰고 있지만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주 동박굴재사건 등 2천여건 규명

진실위 내달 1일 3주년...인권침해 6건 무죄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시대에 발생한 민간 집단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가 내달 1일로 3주년을 맞는다.

28일 진실위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접수된 사건은 직권조사 7건을 포함해 모두 1만97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천19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천177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가속화 단계에 있다"며 "종료시점인 2010년 4월까지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 ▲고양 부역혐의 사건 등이다.

또 재심을 권고한 인권침해사건 28건 중 6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린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거론됐다.

진실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가속화 단계에 있다"며 "종료시점인 2010년 4월까지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리드
선진국형 정회원시스템
1688-3740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FAX: (062)227-9500

산행 안내
12면 게재
한정승인광고
광 박은순 (520327-28300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광고. 한정승인(재계약)에 대한 광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합니다. 광고일로부터 2개월까지 재계약은 승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원상에서 제외합니다. 시군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년선1038
공 고 인: 김홍미, 김홍순, 김민정, 김형민
한정승인수리일: 2008. 11. 25
광고기간: 2008. 11. 29 ~ 2009. 1. 28
연 락 처: 광주 서구 중앙동 1053 한신아파트 105-608 김효미 (010-6654-9322)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1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임용나루 레스토랑
추천업종: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저민트전문점, 조리점
매매가: 5억7천만원(중2억7천만원), 현금매수유망의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속원 김갑순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정면 인화빌딩 앞)
신철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공동	48/233	8935000원	5985000원	시무실별호 학원지하
오동	50/52	1981000원	191300	창고 사무실상하
금호동	104/234	7931000원	492800원	월세 사무실부담 채임
운암동	146/400	12970000원	7910000원	상·사무실상하
왕동	137/223	6910000원	3950000원	상사무실
양동	362/983	41940000원	26950000원	광역주택상하
우동	188/193	10980000원	5980000원	상사무실상하
누동	40/34	4930000원	2940000원	수정초고교-면도리

글씨공방
취업·논술고사 대비 맞춤학습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약필·명필 1대1개인지도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비밀글씨 교육원 T.062)269-0112
010-2642-5559

완도 명사심리 땅 구매
●신지면 신리 420-1 田 (740평) 평당 11만원
●신지면 신리 448-1 田 (500 ~ 1,000평) 평당 15만원
●신지면 대곡리 1946-8 田 (350평) 평당 39만원
바닷가 요지, 관리지역, 도로접 팬션부지
7월 말 관공지 승인, 주인직매 ☎011-765-9388

상무지구 매물구함
건물·토지·상가 임대·점포매매